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Age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Its Related Variables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최 자 은*

석사졸업 문 대 근

교 수 문 수 백**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Doctoral Course : Choi, Ja-Eun

Master's Degree : Moon, Dae-Gun

Professor : Moon, Soo-Ba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peer relationship. 547 schoolage children's social support, self-esteem, empathy and peer relationship.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47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iding in Daegu-Si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peer relationship, social support, self-esteem, empathy. The sample variance-covariance matrix was analyzed using AMOS 20.0, and the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The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using the SRMR,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children's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dn't direct effect on peer relationship. Second, children's self-esteem, empathy have a direct effect on peer relationship. Third, children's social support have a direct effect on self-esteem, empathy. and children's self-esteem have a direct effect on empathy.

▲주요어(Key Words) :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아존중감(self-esteem), 공감(empathy)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아동의 사회생활은 처음에는 가족관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그 관계도 밀접해진다(Lee, 2007). Sullivan(1953, 재인용)은 또래관계의 발달경향을 청소년 이전기, 청소년 초기,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고 아동은 청소년 이전기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 상호작용과 감정교류를 통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기의 건전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지지의 범위가 가정 안에서 가정 밖으로 커져 나가고 사회적 지지자로서 또래의 중요성 또한 높아져 간다.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표본이 되고,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성 및 성격발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Lee, 2007, 재인용). 아동기에 또래와 만족스러

* 주 저 자 : 최자은 (E-mail : ffomee@hanmail.net)

** 교신저자 : 문수백 (E-mail : iqmoon@hanmail.net)

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아동은 또래관계의 경험을 통해 친밀한 관계 유지, 갈등해결의 수단과 같은 많은 사회적 능력을 배우게 되고(Hartup, 1982), 아동기에 또래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아동은 이러한 실패로 인해 이후의 발달적 요구에 대처하는 문제를 겪게 되고, 이 때문에 또래집단에서 중요한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sullivan, 1953, 재인용). 좋은 또래관계가 발달적 도전들을 대처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 그 결과,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적응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An, 2000). 아동은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심을 또래에 대한 의존심으로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Lee, 2007). 또한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된 아동도 한 명 이상의 친한 친구가 있을 때 부적응의 위험은 낮아진다(You, 2005, 재인용).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봄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Hardtop et al., 1993). 즉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감을 형성해 가고, 성공적인 대인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며,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받으면서 신체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을 얻기도 한다(Kostelink et al., 1998). 이와 같이 또래관계가 학령기 과정 뿐 만 아니라 이후 미래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 하였다. 사회적 지지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타인이 주는 실제적 정신적 지원을 말한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Youn, 1993; Choi, 1999; Kim, 2000; Jung, 2002). 자녀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하며, 끈기 있게 집중하며 일을 처리하는 경향을 가진 성취적인 부모의 아동들은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새로운 일이나 경험에 대한 요구에 비협조적이고 비성취적인 부모의 아동들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한다(Jung, 2002). 또한 비판적이고 거부적 성향이 높은 가정일수록 아동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며 또래들로부터 수용도가 낮다(Choi, 1999). 교사는 청소년에게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서 그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건강한 사회의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신념, 가치,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된다(Kim, 2005). 교사에 대한 태도와 친구관계의 기능 및 만족감은 정적 상관관이 있으며(Kim, 2000),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긍정적이다(Youn, 1993). 그러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집단의 아동이 교사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Kim & Lee(2000)의 연구나, 가해 집단 아동이 부모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고, 가해-피해 집단 아동이 교사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Lee & Kwak(2000)의 연구처럼 상반된 연구결과들도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간의 직접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또래관계의 개인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즉 개인이 평소에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또래와의 조화로운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In, 2008), 또래지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인다는 Shu(2004)의 연구가 있다. 또한 Bae(2011)는 학교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래관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고, Kim(2010)은 또래 괴롭힘 수준이 낮고 친구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하면서 또래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예측방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직접적 영향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Davis(1980, 재인용)는 공감을 다차원적 복합개념으로 보고, 타인의 상태에 대한 대리적 경험 없이도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과 타인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자발적인 정서반응인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 하였다. 인지적 공감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심리적 관점에 자발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인 관점취하기와 책, 영화, 연극 등의 상상적 상황에 등장하는 가공적 행위가 감정에 자신을 전이 시키는 경향을 의미하는 상상하기를 포함하며, 정서적 공감은 불행한 사람에 대해 동정이나 관심을 갖는 공감적 관심과 다른 사람이 겪는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공포, 불안, 고통을 의미하는 개인적 고통을 포함한다(Kim, 2012). 집단 괴롭힘의 가해 집단이 일반집단이나 피해 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낮았으며(Kim & Lee, 2000),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끼며 감정이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Kwak, 2000). Lee(2005) 또한 공감은 또래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래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예측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공감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 되며(Redmond, 1989, 재인용), 아동이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감은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에 중요한 변인이 됨으로(Kim, 2012)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 공감을 선

정하여 그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한다.

다음은 원인변인들 간의 관계이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서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Sim, 2000; Kim, 2007; Lee, 2007; Lee, 2010),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연구 되었다(Kim, 2010). 어머니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와 동료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Shu, 2004, 재인용), Lee(2007)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있어 사회적 지지 변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부모, 또래, 교사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평가한다고 지각하면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짐으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것이다(Mead, 1962, 재인용).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와 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Byeon(2002) and Lee(2008)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공감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공감은 생후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증거도 있으나(Hoffman, 1982), 공감 반응에서 안정된 개인차가 2세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Koestner, Franz, & Weinberger, 1990) 어릴 때의 가정환경이 공감발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12).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일수록 아동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며(Collins & Read, 1990), 모자간 애착이나 정서적 상호작용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No, 2003). Kim(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의사소통, 신뢰, 소위를 하위요인으로 둔 애착정도가 아동의 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공감이 환경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이 후천적으로 얻는 사회적 지지가 공감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Won(2004)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아동 개인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보다는 부모, 멘토, 교사 등 타인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나(Kim, 2011; Oh, 2012), 공감훈련이나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Park, 2002; Kim, 2011)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태도에 영향을 주며(김인자, 199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한다(Reasoner, 1982, 재인용). Kim(2008, 재인용)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모든 감정과 태도를 자유로이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근성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성격의 어떤 면도 차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감정과 태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범위가 넓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타인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잘 공감할 것이라는 점을 함의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공감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과도한 성취지향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른 학업에 대한 부담과 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Kim, 2010; Lee et al., 2010), 집단 따돌림, 또래 괴롭힘 등의 문제가 늘어나면서 또래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래에게 수용 받지 못한 경험은 이후의 비행, 범죄, 약물복용, 정신적인 불균형과 정신 병리 등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고(Kim, 2002), 빈약한 또래관계 경험은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Lee, 1995).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또래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Yu, 2005), 또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Hartup, 1992).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관계, 협동성, 사회적 대인관계 능력, 리더쉽, 인기도 등의 측면이 점차 학령기 이후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Ha, 2010). 이와 같은 결과들은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인과관계를 통해 규명된 원인변인들을 통제, 조절한다면 또래관계 또한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일반적인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은 두 변인간의 이론적인 관계의 정도와 성질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다른 제3의 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이론적 관계의 정도나 성질이 가려지고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정 오류 관련 변인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관찰된 변인 간의 관계로부터 제 3변인에 의해 가려지고 왜곡된 관계의 정도를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문수백, 2009),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모델은 <Figure 1>과 같다.

- <연구문제1>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2>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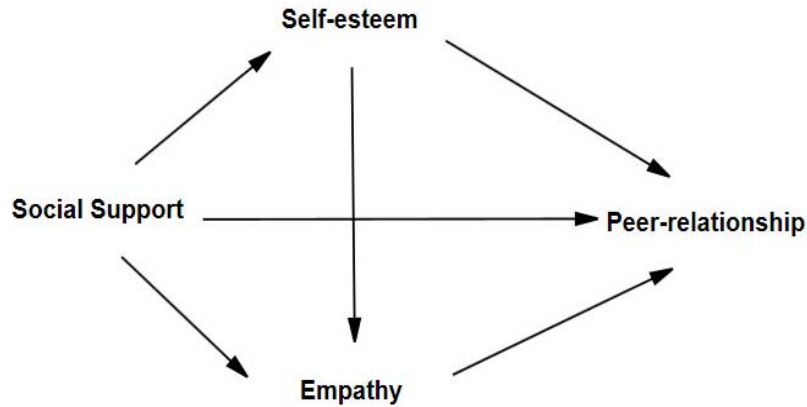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연구문제3> 자아존중감은 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공감을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간의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 경북의 Y, J, U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여 아동 586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법(질문지법)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아동들에게 질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배부·회수 하였으며, 회수 된 자료 586부 중 부실 기재된 39부를 제외하고 최종 54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학령기 아동 중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 시기는 발달특징상 인지발달로 인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져 자신과 환경에 대한 평가가 명료해지고 객관적인 자아지각을 하여 자기의 정서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Montemayor & Eisen, 1977).

2. 측정 도구

1)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주리(1994)가 만든 또래환경 평가 척도 중에서 고학년 아동을 위한 척도를 학령기 아동이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 하였다. 총 17문항으로 하위요인은 '내가 아플 때 친구들이 걱정 해 준다.' 등의 정서적지지(9문항), '나는 친구와 함께 간식을 사먹기도 하고 문방구에도 같이 간다.' 등의 공동 활동(5문항),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아 준다.' 등의 교환적 협동(3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각 영역의 또래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정서적 지지 .89 공동 활동 .77 교환적 협동 .80 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만든 척도를 김승미(1998)가 아동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학령기 아동이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 하였다. 총 24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정서적지지(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5문항)이다. 본 도구는 '부모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준다', '선생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잘했을 때, 칭찬 해 준다.',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이해 해 준다.' 등의 문항으로 아동이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받는지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모지지 .92 교사지지 .91 친구지지 .91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 (1967)와 McChale and Chaihead(1988)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최보가와 권귀연(1993)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학령기 아동이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

자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 하였다. 총 22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친구들은 나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사회적 자아존중감(10문항),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만하다.' 등의 가정적 자아존중감(7문항), '나는 학교에서 내 능력(예: 성격, 학업 등)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다.' 등의 학교적 자아존중감(5문항)이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사회적존중감 .82 가정적존중감 .85 학교적존중감 .70으로 나타났다.

4) 공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IRI검사(Interspersonal Reaction Index)와 Bryant(1982)의 정서 공감 척도(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를 박성희(1996)가 빈안·보완한 공감 능력 검사지를 학령기 아동이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 하였다. 총 30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다.' 등의 인지적 공감(15문항),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있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등의 정서적 공감(15문항)이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

점,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인지적 공감 .80 정서적 공감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는 하위척도인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의 관찰점수를 지표변수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을 지표변수로, 공감은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을 지표변수로, 또래관계는 정서적지지, 공동 활동, 교환적 협동을 지표변수로 하여 <Figure 2>와 같은 통계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20.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하의 11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별 왜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 적합도는 CMIN- χ^2 값, NC, RMSEA, SRMR), TLR, CFI값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추정된 모델의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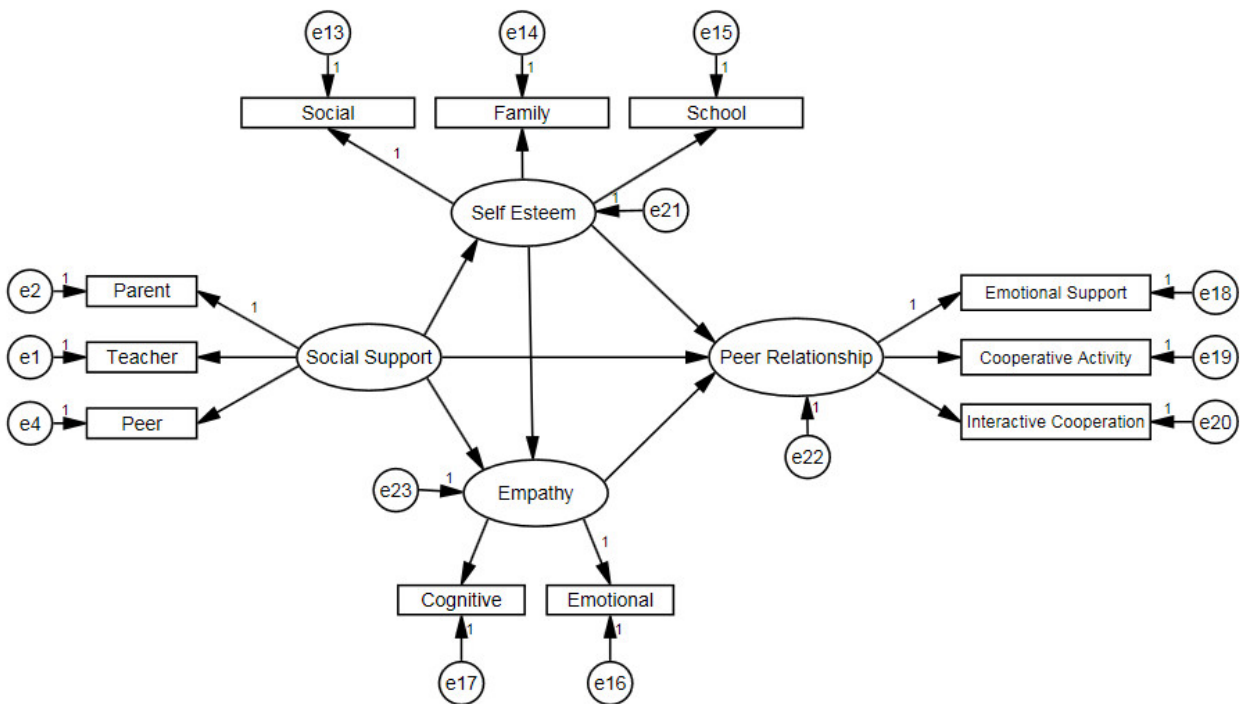


Figure 2.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아래 <Table 1>과 같다.

2.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평가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추정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1)연구모델의 χ^2 값, 2)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3)Bentler CFI, Tucker와

Lewis(1973)의 NNFI, 그리고 4)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문수백, 2009).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 = .06 ~.08 을 비롯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잠재변인과 지표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 부하량이 모두 .5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정도를 검토한 결과 .58~.84범위의 상관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이론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Table 1.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1.00										
2	.58	1.00									
3	.49	.49	1.00								
4	.38	.36	.38	1.00							
5	.39	.36	.36	.55	1.00						
6	.36	.35	.34	.43	.40	1.00					
7	.34	.34	.27	.28	.39	.22	1.00				
8	.38	.33	.26	.22	.31	.25	.48	1.00			
9	.43	.31	.48	.50	.38	.29	.46	.45	1.00		
10	.38	.19	.30	.35	.33	.20	.42	.42	.53	1.00	
11	.43	.21	.34	.35	.36	.30	.45	.42	.59	.56	1.00
Meen	101.61	91.62	90.98	36.31	27.83	15.51	34.85	68.56	31.25	18.42	11.19
SD	16.97	15.97	15.81	6.19	5.14	4.02	6.48	11.75	5.53	3.66	2.65
Skewness	-0.70	-0.75	0.40	0.01	-0.01	-0.09	-0.40	-0.68	-1.10	-0.33	-0.69
Kurtosis	1.63	0.68	-0.32	-0.13	0.31	0.87	0.30	0.37	1.78	0.12	1.51
n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1. Parent support 2. Teacher support 3. Peer support 4. Interactive cooperation 5. Cooperative activity 6. Emotional support 7. Cognitive empathy 8. Emotiona empathy 9. School self-esteem 10. Family self-esteem 11. Social self-esteem)

Table 2.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8)	
								LO90	HI90
Measurement Model	28	38	179.16	4.72	.91	.04	.94	.0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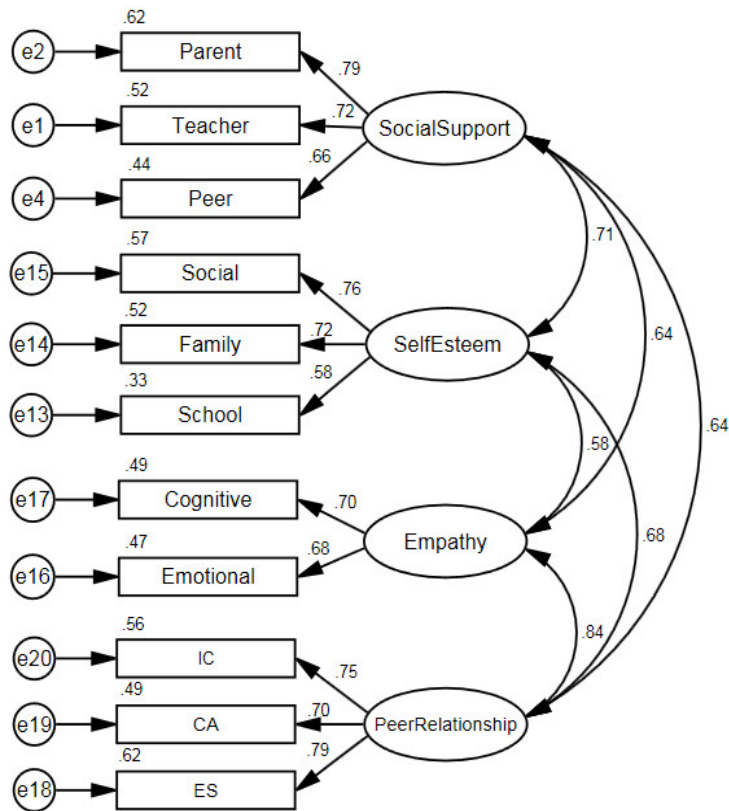


Figure 3. Measurement Model

Table 3. Model Fit Indices for Structural Regression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8)	
								LO90	HI90
SR Model	28	38	179.16	4.42	.91	.04	.94	.07	.09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통계적 분석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통해 구조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 (.06 ~ .08)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분석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한 결

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지지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연구모델에서 수정된 간명모델이 위계적 모델(Hierarchical Model)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초기연구모델에서 사회적지지 → 또래관계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여도 초기모델과 수정모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카이자승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chi^2_D = .01, p = .94$ 로서 부합도에 있어서 수정모델과 초기연구모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모델이 초기연구모델과 비교하여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경로 1개를 제거한, 보다 간명한 모델이므로 수정모델 <Figure 4>를 최종분석모델로 선택한 다음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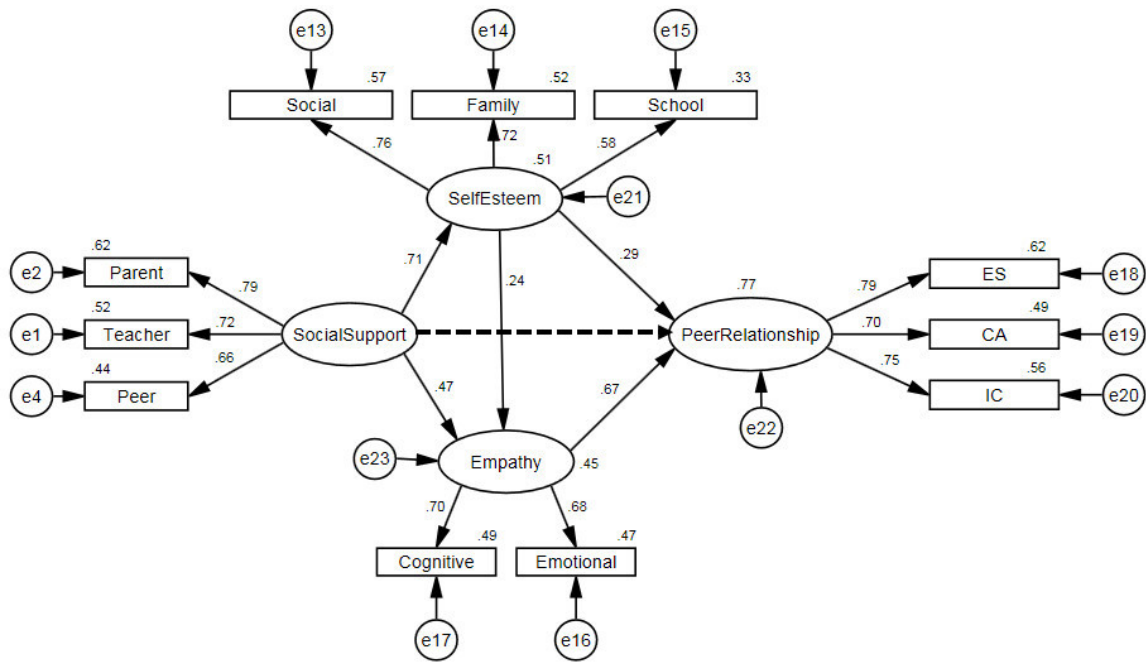


Figure 4. Modified Model

Table 4.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Structural Model and Measurement Model in Peer-Relationshipship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i>p</i>	Standardized
<u>Structural Model</u>					
Social Support → Self-esteem	0.25	0.02	11.83	*	0.71
Social Support → Empathy	0.28	0.06	4.77	*	0.47
Self-esteem → Empathy	0.42	0.17	2.56	.010	0.25
Empathy → Peer-relationship	0.36	0.05	7.35	*	0.67
Self-esteem → Peer-relationship	0.27	0.07	3.63	*	0.29
Social Support → Peer-relationship	0.01	0.03	0.08	.939	0.01
<u>Measurement Model</u>					
Self-esteem → Social Self-esteem	1.00				0.76
Self-esteem → Family Self-esteem	0.79	0.06	14.10	*	0.72
Self-esteem → School Self-esteem	0.50	0.04	11.76	*	0.58
Empathy → Emotional Empathy	1.00				0.68
Empathy → Cognitive Empathy	0.57	0.05	12.57	*	0.70
Peer-relationship → Emotional Support	1.00				0.79
Peer-relationship → Cooperative Activity	0.59	0.04	15.56	*	0.70
Peer-relationship → Interactive Cooperation	0.45	0.03	16.81	*	0.75
Social Support → Peer Support	1.00				0.66
Social Support → Teacher Support	1.10	0.08	13.44	*	0.72
Social Support → Parent support	1.27	0.09	13.77	*	0.79

**p* < .05

Table 5. Model Fit Indices for Modified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8)	
								LO90	HI90
Modified Model	27	39	179.17	4.59	.91	.04	.94	.07	.09
Original Model	28	38	179.16	4.72	.91	.04	.94	.07	.09

Table 6. Effects Decomposition for a SR Model of Peer-Relationship

Parameter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ocial Support	→	Self-esteem	.71 *	.71 *	-
Social Support	→	Empathy	.65 *	.47 *	.17 *
Social Support	→	Peer-relationship	.64 *	-	.64 *
Self-esteem	→	Empathy	.25 *	.25 *	-
Self-esteem	→	Peer-relationship	.46 *	.29 *	.17 *
Empathy	→	Peer-relationship	.67 *	.67 *	-

*p < .05

4.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초기연구모델과 비슷하였으나 절대 부합지수인 Chi-Square(CMIN)값만 0.01만큼 낮아졌다. 따라서 수정된 연구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모델인 최종분석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공감에 통계적으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평가설이 기각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공감 및 또래관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감도 또래관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적 결과로 나타난 간접효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감을 통해서도 또래관계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공감이라는 두 변인을 모두 매개하여 또래관계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중 아동의 또래관계에 상대적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변인은 공감이었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결과변인으로 하고, 원인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을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는 사회적 지지로부터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고, 자아존중감과 공감으로부터는 직접영향을 받았다. 공감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으로 부터 직접영향을 받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로부터 직접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정한 연구가설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이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또래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긍정적이다라는 Youn(1993)의 연구와 반대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집단의 아동이 교사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며(Kim & Lee, 2000) 가해 집단 아동이 부모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고, 가해-피해 집단 아동이 교사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힌 Lee and Kwak(2000)의 상반된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가 또래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Kim and Lee(2000)의 연구과 Lee and Kwak(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해 집단이 오히려 친구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아동이 오히려 또래관계에서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교사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Kim & Lee, 2000).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또래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부수적으로 얻게 되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또 다른 매개변인을 밝혀 낼 필요가 있다. 문수백(2009)은 변인과 변인간의 관계에서 상관이 생기는 원인은 변인과 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제3의 요인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간의 유의미한 상관의 원인은 사회적지지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 때문이 아니라 간접효과 때문이거나 제 3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간에 상관이 있으며, 자아 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Bae(2001)와 In(2008)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같이 하며, Shu(2004)의 연구 중 논의에서 밝힌 또래관계에서 수용도가 낮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는데(Rosenberg, 1965, 재인용), 본 연구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아동의 또래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공감은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이 낮을수록 또래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가해 행동을 하고 가해에 참여하며(Kang, 2007), 인지적, 정서적 공감이 또래 수용도에 직접효과를 준다(Lee, 2005)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아동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June(2009)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아동의 공감능력은 또래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Redmond, 1989, 재인용), 아동이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경험 할수록 친구를 사귀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활발하게 놀이에 참여하고, 놀이를 주도하며,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June, 2009).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 아동의 공감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아동의 원만한 또래관계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해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감정을 느끼고, 상상해보거나,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교감하고 동정을 느껴보는 것 등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공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예측 방향이 상반되고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Sim, 2000; Kim, 2007; Lee, 201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친구, 가족,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Lee(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Kim(2010)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으며,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생활, 기타 사회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얻어지는 인정과 신뢰, 소속감 등의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는 Pherham and Swann(1989)의 연구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 중 가정과 학교 안에서 받는 가족과 교사와 친구들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칭찬, 수용, 격려 등의 지지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지도 할 때 교사 역시 아동을 지지하고 학급친구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대할 때 지지 해 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실천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는 공감에도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이 상관이 있음을 밝힌 Byeon(2002)과 Lee(2008)의 연구결과와 부모의 수용도가 높으면 청소년의 공감점수도 높다는 Kim(199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지지가 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동이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 든든한 지지를 받을 때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감적 역량이 커짐을 함의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부모, 교사, 또래의 적극적 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힌 Won(2004)의 연구결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면 공감능력 또한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자신능력 있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다고 생각 할수록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교감하고, 느끼는 능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부모, 멘토, 교사등 타인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나(Kim, 2011; Oh, 2012), 공감훈련이나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Park, 2002; Kim, 2011)들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타인의 공감이 아닌 아동 개인의 공감과 자아존중감 또한 정적상관이 있으며,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통계적 검증 과정 중에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에 간접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부수적으로 얻게 되었다.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많은 부정적 태도를 받고 자란 아동은 그들 또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며 교사나 다른 타인을 대할 때도 그들 역시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 타인들의 행동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며(Cergen, 1971, 재인용), 이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공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인기도와 사회성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여 부모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효과가 없으며 그 원인을 사회적 능력에 대하여 공감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공감이 부모의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완전 매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Kim(2012)의 연구와, 아동의 공감은 부모의 애착 안정성의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는 부모의 온정성 및 반응성과 같은 긍정적 표현성과 사회적 능력 사이를 매개한다고 밝힌 연구(Zhou et al., 2003), 또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상호 친밀한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능력 간의 공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Kim(2005)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긍정적인 지지가 아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높이며, 그러한 공감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해 기술, 예측, 설명하고,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또래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내적으로는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은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 사이를 매개하여 궁극적으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이 됨을 부수적으로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5, 6학년 아

동 외의 다른 연령에는 일반화 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모든 잠재변인들은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아동의 자기보고식 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된 연구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의 모델만으로 아동의 또래관계 전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본 연구의 결과가 학령기 아동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실적 방안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김인자(1991). **적용심리**. 서울: 상담심리연구소.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An, W.(2000). *The relation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relation,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thought and peer prefer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Bae, Y.(2011). *The effect of self-esteem on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of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Bark, S.(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4(5), 143-166.
 Byeon, J.(2002).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daption of juvenile, empathy, values*.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Choi, B. & Jun, G.(199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inventory」(1).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2), 41-54.
 Choi, Y.(1999). *The relationship of friendship status and popularity according to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birth-order and sibling statu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Ha, S.(2010). *Father's parenting attitudes predicting girl's*

- levels of competence: gender-role stereotypes and internal motivation as mediator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artup,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s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up, W. W.(1992). *Peer relations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N.Y.: Plenum press.
- Hartup, W. W. & French, D. C. The & Laursen, B. & Johnston, M. K. & Ogawa, J. R.(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2), 445-454.
- Hoffman, M. L. & C. E. Izard(Ed.).(1982). The measurement of empathy. In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279-296.
- In, S.(2008). *The effect of children's self-esteem an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on the children's peer rel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Jun, E.(2009). *The relationships among empathy,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Jung, M.(2002).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the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the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Jung, M.(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Youth Culture Forum*, 25, 130-170.
- Kang, E.(2007). *Wangta as a group process: relation between wangta participant rol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aggressive behavior, social competence and empathy.*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Kim, A.(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ego-resiliency, parents, peer attachment that affect the daily stress level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2011). *The effects of parental empathy on the adolescent's empathy, self-esteem, parent-child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H. & Lee, H.(2000).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the behaviors of bullies and victims at school sully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4(1), 45-64.
- Kim, J.(2005). *The effects of school life by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 Kim, J.(2012). *The effect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exploring the pathways between parent attachment, empath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2002). *Preadolesc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ccording to institutionalized or not, sex, age.*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Kim, J.(2009). The relationship among empathy, peer influence,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47(1), 49-72.
- Kim, J.(2000). *Friendship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school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2007).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loneliness.*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 Kim, J.(2010).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1), 21-32.
- Kim, K.(2011). *The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mpathic ability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Education University, Seoul.
- Kim, K.(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sychological growth and social competence-empathy as a mediating variabl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2(3), 1-13.
- Kim, S.(1998). Research articles: parental acceptance and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path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41(3), 167-190.
- Kim, S.(1998). *The effects of adaptation of a school life on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line, R. B.(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Guilford Press.
- Kostelink, M. J. & Stein, M. S. & Whiten, A. P. & Soderman, A. K.(1998).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South-Weston Publishing.
- Kestner, R. & Franz, C. & Weinberg, J.(1990). The family origins of empathic concern: a 2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709-717.
- Lee, Ch. & Kwak, K.(2000). Self-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3(1), 65-80.
- Lee, G.(2007). *The variables influencing peer relationship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sil University, Seoul.
- Lee, H.(2007).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to self-esteem among children needy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Baekseok University, Cheonan.
- Lee, J.(1994). Study on children's home environment and peer group environment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Lee, M.(1995). *Children's social emotional behavior and nobility according as peer posi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2010). *The effects of self-concept, parent's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 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 Lee, S. & Doh, H. & Choi, M. & Ku, S.(2010). Exploring pathways from mother's beliefs to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education and stress levels.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31(3), 255-272.
- Lee, S.(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ge's empathy,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Y.(2008). *The effect of low income family children's hope, empathy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y well-be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Montemayor, R. & Eisen, M.(1977).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ion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3, 314-319.
- No, S.(200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to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Oh, M.(2012). *The effects on mentor's empathic ability on mentee'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
- Park, H.(2002). The effects on empathy training on the empathic ability and the self-esteem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Pherham, B. W. & Swan, W. B.(1989). From self-conception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Shu, Y.(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peer relation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Sim, S.(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Won, E.(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business manners, empathy, and sense of self-respect*.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You, Y.(2005). *The parenting styles and peer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from broken family*. Unpublished Master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Youn, H.(1993). *A perception of everyday stress and social network support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Zhou, Q. & Eisenberg, N. & Losoya, S. H. & Fabes, R. A. & Reiser, M. & Guthrie, I. K. & Murphy, B. C. & Cumberland, A. J. & Shepard, S. A.(2002). The relations of responding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3), 893-912.

접수일 : 2012년 11월 15일

심사일 : 2012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2월 15일